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새로운 어로신화를 창조해가고 있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인 조선인민군 8월 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황금해력사창조의 첫 폐지를 쓴 조선인민군 8월 25일수산사업소는 자신과 깊은 정을 맺은 곳이라고, 이곳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싶어 또다시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배전이 넘치게 물고기를 가득 실고 들어와 한창 하루작업을 하고 있는 고기배 《단풍1-03》호에 오르시여 어로공들의 고기비늘물을 손을 반갑게 잡아주시고 그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물고기잡이 및 저장실태, 공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랭동저장고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물고기판들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면서 인민군대안의 수산사업소들에 나가보면 어디서나 이런 흐뭇한 풍경을 볼수 있다고, 8월 25일수산사업소 랭동저장고도 터져나가도록 물고기들이 꽉 차있는데 정말 기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물고기 가공장에서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어로공



들의 안해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남편들은 풍랑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면서 당시 제시한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였고 안해들은 가족소대를 뭇고 경쟁적으로 물고기가공전투를 벌리고 있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업소 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린내를 맡으니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이 잡아들인 물고기를 미처 처리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다가도 이런 행복에

겨운 이야기를 들을 때면 새힘이 솟고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수산사업소에 고기배를 무어 보내주면서 오푸백과 주렁진 풍요한 가을이 바다에서도 펼쳐지기를 바라며 배들의 이름을 《단풍》호라고 지어주던 날이 엊그제같은데 오늘같은 기적이 빨리도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높이 쌓아올리고 있는 물고기보물은 불굴의 정신력이 응축된 위훈의 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이룩하고 있는 놀라운 성과들을 통하여 황금해의 새 력사를 반드시 창조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 굳게 가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기세로 분발하여 투쟁 또 투쟁 함으로써 황금해의 력사를 애국충정의 피와 땀으로 출기차게 써나가는 수산혁명의 선구자, 바다의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바다는 우리 세대와 후손만대가 덕을 볼 무궁한 자원이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이 당의 수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서 당파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충정심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세세년년 물고기대풍, 물고기사태를 마련하는것으로써 부강조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수산부문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파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올해에도 자랑찬 물고기사태를 안아왔다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해마다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80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80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대련합부대는 현대전의 공격과 방어에 다준비된 강위력한 정예대오로 자라났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80대련합부대가 지난 기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웠으며 특히 북부피해복구전선에 급파되어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 야마는 우리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기풍, 전투적기질을 남김없이 파시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부대장병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련합부대에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 들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 부대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인회관을 돌아보시면서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것처럼 혁명가에게는 사상정신적량식이 있어야 한다고, 군인들을 사회주의조국수호의 길에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불굴의 투사들로 더욱 억세게 키우기 위해서는 당이 제시한 5대교양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사연

구실에서 대련합부대장으로부터 대련합부대의 방어작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전투문건들을 검토해주시였으며 작전강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대련합부대관하 부대들의 임무수행과 훈련실태,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련합부대의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체전법, 항일무장투쟁과 지난 조국해방전쟁경험을 깊이 연구하고 적들이 최근시기 감행하고 있는 전쟁방식,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르는 작전전술의 변화에 대하여 파고들어 모든 작전과 전투를 우리식대로 해나갈수 있는 기묘하고 령활한 작전전술적방안들을 완성해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모든 훈련을 실전과 같이 조직하고 훈련장마다에서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

써 군인들을 여러가지 전투행동조법들에 정통한 펠페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억세게 준비시켜가고있으며 특히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킬 드높은 열의를 안고 훈련준비를 빙틈없이 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80대련합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파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80대련합부대가 지키고있는 방어지대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놓는다고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부대장병들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판문점은 통일의 상징으로 빛날 것입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겨례의 마음이 뜻깊은 11월 24일을 맞으며 판문점으로 끌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남녘의 차디찬 감방에서 절세위인의 판문점시찰소식을 접하고 경격과 환희로 가슴부풀던 때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혁사의 날파 더불어 판문점에서는 겨례의 가슴가슴을 통일에 대한 신심과 환희로 부풀게 한 사변들이 많이도 일어났습니다.

진정 그것은 분별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의 빛나는 실현이었습니다. 하기에 그 감동의 화폭들은 조국통일운동이 시련을 겪을수록 더더욱 겨례의 심장속에 살아 높뛰며 새로운 투지와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 * *

저희집에는 백두산호랑이를 형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집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며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에 형상된 백두산호랑이의 따옹소리가 귀전에 들려온다면 『쉬—위—/ 바위우에 호랑이 나섰다/ 백두산호랑이 나섰다/ 앞발을 거세게 내여뻗치고/ 남쪽하늘 노려보다가/ <따옹—> 산풀을 깨친다』라고 읊군할 때면 정말 감개가 무량해지군 합니다.

그 그림은 제가 20년 전 광주감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혁사적인 판문점시찰소식을 접하고 그린 것입니다.

참으로 상상도 못했던 일이 였습니다. 눈앞에서 적들이 씨글거리고 가랑잎 날리는 바람소리에도 반사적으로 격발기에 긴장이 서린다는 판문점, 적아가 불과 50cm의 분리선을 사이에 두고 팽팽히 대치되어 있는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우리 장군님께서 나오시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빨찌산의 아들이라고, 우리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라도 가야 하고 또 가고있다고 하시며 결연히 판문점시찰의 길에 오르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 충격은 가히 메가톤급이였습니다. 적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는가 하는 것은 당시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비서장이었던 미군대령이 『발밀에서 원자탄이 터진 것 같은 심정이었다.』, 『지옥행열쇠를 받아안았다.』고 비명을 지른것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습니다.

그때 피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소식이 남녘겨레들에게 알려질가봐 떨었지만 찬란히 비쳐드는 해살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었습니다. 『한겨례』를 비롯한 많은 남조선언론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소식을 보도하였으며 그 소식은 천파만파의 갈기를 일으키며 세상을 들었다놓았습니다.

판문점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수령님의 한생을 되새겨보시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을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정립해주시며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

실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시였습니다.

통일을 바라는 겨례의 열망이 비낀 판문점, 이곳시찰을 어찌 한개 최전연초소에 대한 시찰이라고만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온 겨례에게 통일의 희망과 신심을 주고 내외분렬주의세력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성스러운 애국장거였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생사존망의 위기가 충충으로 드리웠던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적들이 내돌리는 공화국이 짧아서 3일 혹은 3달, 길어서 3년안에는 봉괴된다는 『3·3·3봉괴설』이라는 것을 세계의 적지 않은 나라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던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삶이나, 죽음이나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며 나라의 통일문제까지 헤아린다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품에 안겼을 때 들은 이야기이지만 언제인가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판문점과 같은 위험한 곳에 다시는 나가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말씀을 털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그러면 조국통일은 누가 어떻게 하겠는가, 나에게 가기 힘들고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것은 우리 나라를 계속 두개의 조선으로 놔두자는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시였다고 합니다.

뜨거운 혁명열, 투쟁열, 철석의 통일의지로 온 심장을 불태우시며 혁사적인 판문점시찰을 단행하시여 모진 풍파를 헤쳐나가는 조국에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겨례의 심장을 통일애국의 박동으로 높뛰게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

정말이지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천만대적을 밟아래로 굽어보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투철한 통일애국의지를 지닌 백두령장이 아니고서는 내릴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에 가슴이 뭉클해났고 백두산호랑이의 위용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백배의 힘을 주어 백두산호랑이 그림창작에 달라붙게 하였습니다. 운동단체들에서 차입물로 보내준 종이위에 붓을 휘갈기며 백두산호랑이의 서리발기상을 형상화 때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적진에 번개치며 백승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기상이 어려와 심장이 박동치듯 하였습니다.

특히 저의 심금을 틀어잡은것은 빨찌산식 현지시찰의 그날 분별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실 철의 의지를 천명하신 절세위인의 숭고한 모습이었습니다.

판문점을 가까이한 장풍땅에 래를 묻은 저는 어릴적에 아버지를 따라 널문가게들이 있던 그곳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판문점이라는 이름 자체가 옛적부터 널문을 단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서있었다고 하여 불러온 것입니다. 그 무명촌이 유명촌으로 된것은 조선전쟁시기 정전담판이 진행되고 미제가 항복서를 섬겨바친 그때부

비전향장기수리경찬

이곳에서 통일과 분별이 싸웠습니다.

침략을 노리는 총구에서 불꽃이 튀여오른것은 그 얼마였고 1976년의 8·18사건때와 같은 적들의 도발책동이 전쟁으로 번져질번 한 적은 또 얼마입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고 웨치는 겨례의 합성은 강토에 차넘쳤지만 판문점하늘가에 무겁게 드리운 분별의 구름은 가시여질줄 몰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에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친필비를 세우도록 해주시고 해마다 8월 15일을 맞으며 통일축전의 환호성으로 끊게 하여주신 그때부터 판문점의 혁사적 의미가 달라졌으며 겨례의 마음이 뜨겁게 달려오는 자주통일의 현장으로 새롭게 태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빛내여주실 의지를 전명하시였으니 금시라도 분별의 콩크리트장벽이 터져나가는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절세의 위인상을 백두산호랑이의 이미, 거기에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영장의 위엄과 자애로운 덕화가 어려야 한다, 분별의 장벽을 통채로 들부실듯 호랑이가 앞발을 거세게 내여뻗친 모습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백두산호랑이 그림을 구상하고 그려보기를 수천번, 드디여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백두산호랑이가 금시 앞으로 뛰여나오며 『따옹—』하고 포효를 터칠것만 같은 그림을 보며 함께 옥중고초를 겪던 동지들은 맹호출렁의 기상앞에서 절로 힘이 솟고 용기와 배심이 차넘친다며 기뻐하였습니다.

백두산호랑이의 불호령으로 적들을 쥐락펴락하시며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마침내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주시였습니다.

온 겨례와 전세계를 격동과 환희로 끊게 한 혁사적인 6월의 평양상봉, 정녕 그것은 판문점을 시찰하시며 우리가 조국통일을 위해 통장훈을 부를 때가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진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꽃물결이 굽이쳐흐르는 속에 판문점도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였습니다.

긴장감만 떠돌던 적막한 판문점에 사람들과 차량들이 봄비고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들이 줄을 이으며 통일의 새움을 틔우고 민족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 나날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굳게 닫겼던 분계선을 터치며 맨 먼저 자욱을 내디딘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감회도 새로운 2000년 9월

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습니다.

판문점에 6.15의 꽃물결이 굽이치던 그때 우리 겨례는 이곳에 차넘치는 우리 민족끼리의 합성이 통일의 축포성으로 터져오를 앞날만을 생각하였지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의 동토대로 뒤바뀌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집권한 첫시작부터 『잃어버린 10년』이니, 『북남선언 전면체결』니, 『새 〈정권〉이 리행할 의무가 없다.』느니 하며 민족공동의 소중한 열매를 모조리 유린말살한 남조선 보수세력의 발악적도전은 지금 박근혜당에 의해 최악의 단계에서 악랄하게 강행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북파 남이 마주 앉으면 통일지향적인 결실들이 이루어져 온 겨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지난날 아래웃집으로 오붓하게 모여살던 514개의 부락이 종적없이 사라지고 122개의 마을과 8개의 군이 북파 남으로 갈라져 어언 50여년.

해묵은 잡초를 걷어내고 녹쓴 레루를 들어내며 군사분계선상에서 민족의 혈맥과 지맥이 이어지는 혁사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또 얼마후에는 분별의 아픔을 포개안고 잠자던 판문점을 흔들어 깨우는 발파소리와 함께 6.15의 옥동자인 개성공업지구건설착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비방 중상하는 선전심리적대결로 침예하던 이 지역에서 각종 비방선전수단들까지 철거되었습니.

판문점과 더불어 일어나는 희한한 일들도 많아 민족분별사상 처음으로 남녘의 한녀인이 북에서 낳은 옥동녀를 안고 판문점분리선을 넘어가는 경사도 꽂여났습니다. 그로 말하면 『한총련』 대표로 사선을 헤치고 평양에 와서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고 판문점분리선을 넘는 그 길로 체포되어 감옥생활까지 하였던 녀인이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판문점을 넘어서 자마자 쇠고랑을 차야 했던 그녀인이 평양에서 태여난 옥동녀를 안고 꽃묶음을 흔들며 판문점을 넘어가는 모습은 판문점이야말로 통일의 상징임을 응변하는 명화폭증의 하나였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판문점을 넘어서 자마자 쇠고랑을 차야 했던 그녀인이 평양에서 태여난 옥동녀를 안고 꽃묶음을 흔들며 판문점에 대한 시찰을 단행하신 위대한 장군님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의 3월 판문점을 찾으시였습니다.

그날 판문점에 나오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석의의지를 가다듬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혁사의 11월 판문점을 시찰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모습그대로였습니다.

대낮에 적진이 불파 수십m 앞에서 환히 바라보이는 판문각로대에까지 나가시여 쌍안경으로 남녘땅을 굽어보시는 그이의 서리발같은 안광은 꽈김정일장군님의 백두산호랑이기성이었습니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판문점시찰이 안아온 충격은 통일의 원쑤들을 전률케 하였습니다.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청청하늘에서 섬광이 일고 천동소리를 듣는것 같아 깜짝 놀랐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공중분해되는것을 보는것 같다.』라는 보도들을 험속 날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TV를 통해 봤으며 6.15의 꽃물결이 다시 굽이치고 판문점이 통일의 도전으로 막을연이이라는것을 더 굳게 해주고있습니다.

통일의 찬란한 태양이 삼천리를 밝게 비치여 판문점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염원하신대로 통일의 상징으로 빛날 것입니다.

확신하였습니다.

그날은 가까와오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폐무리들을 쳐갈기시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펼치신것처럼 우리 조국을 해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고 그 무진막강한 위력으로 통일강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가고계십니다.

수소탄의 장쾌한 희성으로 막을연 선군조선의 사변적인이 한해동안에만도 핵무기연구소를 찾으시여 정의의 핵탄도보아주시고 때로는 멀고 험한 경길도 넘으시여 우리식의 위력한 탄도로케트의 장쾌한 시험발사장면도 보아주시였으며 언젠가는 배의 갑판우에 서시여 바다물면을 뒷고 치솟아오르는 전략잠수함단도탄의 성공적인 수중시험발사를 보아주시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빛나는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신 우리 원수님이십니다.

한밤 자면 또 다른 위력한 무기가 태여나고 그때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공포의 비명을 지르는것을 볼 때면 판문점시찰의 그날 정전협정조인식장에 들리시여 앞으로 쌔움이 일어나면 원쑤들이 정전협정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것이라고 하신 백두령장의 추상같은 선언이 들려오는것 같아 통쾌함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백두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여시여 전설같은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는 우리 조국에 만리마의 힘찬 발굽소리가 천지를 진감하고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세상이 변하는 천지개벽의 새 혁사가 펼쳐져 세인을 경탄케 하고있습니다.

반면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며 『체제통일』을 어리석게 꿈꾸던 박근혜역적폐당은 나라와 민족을 반역한 죄악으로 하여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초불바다에 휩싸여 마지막을 돌아쉬고있습니다.

아직 삼천리 이 땅은 대결의 차디찬 동토대이지만 겨례의 마음속에서는 통일의 막을수 없는 대하가 사풀쳐 흐르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통일로선을 천명하시고 자주통일의 휘황한 설계도를 또다시 펼쳐주시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처럼 깊으시면서도 로숙하고 세련된 타월한령도자를 모시여 우리 조국이 강하고 통일강국의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리라는것을 가슴뿌듯이 확신하였습니다.

통일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이 신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뜻과 의지로 밝아옵니다.

백두의 슬기를 체현하신 그이의 자주의 넋으로 민족의 앞길이 열리고 불가능을 모르는 그이의 억센 힘으로 통일의 열차는 기운차게 전진하며 그이의 뜨거운 애국의 열파 정에 발들려 민족단합의 숲은 날로 더욱 푸르고 무성해 가고 있습니다.

통일의 찬란한 태양이 삼천리를 밝게 비치여 판문점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염원하신대로 통일의 상징으로 빛날 것입니다.

류미영선생의 서거에 대한 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선생은 폐암으로 주체 105(2016)년 11월 23일 12시 10분에 95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류미영 선생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받아들여 민족의 통성번영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여온 애국적인 정치활동가이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인 주체 10(1921)년 2월 14일 이국땅에서 애국지사 류동열선생의 외동딸로 태여난 류미영선생은 망국노의 설음을 사무치게 체험하면서 참다운 애국의 길을 찾아 꼭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왔으며 남조선과 해외를 방황하다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속에 극적인 인생전환을 하고 남편 최덕신선생과 함께 공화국에 영주하여 보람있는 삶을 누리였다.

선생은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고문,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조선민



국과 민족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주제 105(2016)년 11월 23일

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사업하면서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로선과 조국통일로선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선생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한울님으로, 구세제민의 태양으로 우러러 흠토하면서 온 겨레의 단합과 통일의 새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심혼을 다 바치였다.

선생은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 수행에 이바지한 공로로 하여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조국통일상과 많은 국가표창들을 받았다.

선생은 비록 서거하였으나 조

세기 이어 빛나는 조선녀성들의 값높은 삶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단장 강조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단장인 남주현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회견에서 그는 조선녀성운동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역사적인 대회에 참가한 끝없는 기쁨과 감격을 금치 못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 조선녀성들의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기상을 과시한 충정의 대회였다.

대회에 참가하고보니 우리녀성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해주시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사무치게 안겨와 솟구치는 눈물을 겉잡을수 없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너성문제해결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너성들의 참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사회주의조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녀성단체로 빛나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의 강화발전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손길이 어리여있다.

대원수님들께서는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동포녀성들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힘파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재일조선인운동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키워주시였다.

진정 조선녀성운동이 걸어

온 자랑스러운 행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너성중시, 너성존중의 빛나는 혁사이다.

주체적녀성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영광스러운 혁사와 전통을 마련하여 주신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업적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길이 빛날 것이다.

오늘 조선녀성운동은 또한 분의 절세의 위인이 신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대회참가자들에게 혁사적인 서한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너성들을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시였다.

세상에 우리조선녀성들처럼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세기장을 이어가며 깊높은 삶을 누려가는 복받은 너성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태양의 품이 있어 너성의 존엄도 있음을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심장깊이 새긴 우리들의 가슴가슴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떠받드는 뿌리가 될 일념으로 불라고있다.

우리 재일동포녀성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너성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 자녀들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역아이들이 송도원에서 이 세상 만복은 다 저희들의 것인듯 끝없는 즐거움에 잠겨 마음껏 웃고 떠들며 너무 좋아 어쩔바를 몰라하지 않았던가.

비록 재난을 당했어도 불행이란 말조차 모르고 다심한 어버이정에 울고웃어온 피해지역인민들, 그 웃음은 오늘

새집들이경사로 홍성이은 북변천리 이르는 곳마다에 웃음꽃 바다를 펼쳐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정신이 안아펴운 북변천리의 웃음꽃바다!

그 웃음꽃바다야말로 오직 인민만을 알고 인민만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인민이 터치는 끝없는 격정의 분출, 떨어져 순간도 살수 없는 위대한 품을 노래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이다.

본사기자 흥법식



크고 멋진 새 집을 받아안게 된것이 꿈만 같아 자다가도 일어나 새 집을 쓸어본다는 로인이며 혼자 살던 집이 무너졌기에 내게까지 어떻게 새 집이 차례지랴 했는데 나에게도 딩실한 새 집을 안겨주었다며 너무나 큰 행복에 몸둘바를 몰라하는 너인, TV에서 보던 희한한 탁아소가 우리 마을에 생겼다고 기뻐하며 조금만 짚었어도 아이를 낳고싶은 심정이라고 웃고 떠든 경홍땅의 너성들... 소스라치는 대재난의 시각은 언제였던가 싶게 기쁨에 젖고 행복에 웃는 피해지역인민들이다.

자고로 재난이 휩쓸 곳에서는 슬픔과 불행의 눈물, 땅이 꺼지는 듯 한 탄식소리만이 울리기 마련이지만 이 땅에서는 피해지역인민들이 터

분노의 바람에 징벌의 초불은 더 활활

서울 광화문은 말그대로 초불의 바다였다.

11월 12일에 이어 19일에도 70만개가 넘는 초불이 『박근혜야』, 『박근혜퇴진』이라는 구호를 웨치며 광화문의 밤을 밝혔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도시들에서도 40만여명이 초불시위에 참가했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도 해외동포들이 지핀 박근혜퇴진초불이 타올랐다.

로동자, 농민,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 지팽이를 짚고 나온 늙은이, 젊은 련인들, 청년대학생, 교복입은 학생 등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었다.

정치적리념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탄핵운동에 나서고 있다. 수년 전 선거때에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사람들까지 그때 일을 후회하고 탄식하며 거리로 달려나와 분노를 터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몇 안되는 그 패거리들은 아직도 성난 민심에 도전하여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라는자는 박근혜특검법에 반대하면 서 『초불은 초불일뿐이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민심은 언제나 변한다.』는 망언까지 늘어놓아 온 남녀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인 터 네 트에서 『200만 모이라고 부추기는구나』, 『바람이 청와대쪽으로 불어 초불이 청와대에 옮겨붙어 다 테워버릴거다.』, 『들불은 바람이 불면 더 거센 불길이 된다는것을 모르네.』, 『초불이 해불이 되고 다시 들불이 되여 이 산하를 태우리라.』라는 각계층의 비난이 그칠세 없이 쏟아졌다.

19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한 대학생은 시민 자유발언에서 『김진태, 너나 꺼지라. 초불은 바람불면 옮겨붙는다.』고 말해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초불 한개는 꺼지지만 2개면 옆으로 옮길 수 있다. 우리가 이 초불을 들불로 만들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격노한 시민들은 초불을 높이 들고 『박근혜퇴진』과 함께 『김진태사 한다는 거대한 민심의 분

퇴』의 구호를 목청껏 웨치며 행진하였다.

어떻게든지 박근혜를 편역드느라 아무렇게나 놔까린 김진태의 말은 결국 성난 초불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시민들뿐 아니라 정계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100만 초불은 머지 않아 1 000만 초불로 타오를 거니 조용히 있으라.』고 반박했고 국민의 당 부대변인은 『박근혜퇴진 합성은 바람이 불면 꺼지는 나약한 초불이 아니라 강력한 해불이다.』고 조소했다.

남조선에서 껴질줄 모르는 초불시위를 목격한 한 외신도 『초불은 겨울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근혜에 적폐거리를 남조선전역에서 타오르고 있는 초불, 거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바람의 의미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것 같다.

바람과 초불.

지금 남조선에서 바람은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는 거대한 민심의 분

노이다.

초불은 그 민심이 지펴 올리고 해불처럼, 들불처럼 무섭게 번져가는 징벌의 불길이다.

하나의 초불은 한 사람의 입김으로도 끌수 있지만 수십만, 수천만이 손에 든 초불은 그 무엇으로도 끌수 없다.

꺼질것은 민심이 처든 초불이 아니라 국민을 데리고 모욕하고 짓밟은 박근혜나 김진태와 같은 자들이다.

박근혜가 민심을 거역하고 아무리 뻗칠수록 초불은 100만, 200만, 1 000만의 초불바다가 되고 거세찬 해불이 되여 청와대를 향하여 시위행진도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김춘경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심의 거대한 분노가 련일 초불로 타오르고 박근혜퇴진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운하늘땅을 진감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각 지역들에서 진행된 초불집회에는 무려 백수십만명의 각계층 인민들이 참가하여 민심의 『대

통령』 탄핵열기가 얼마나 높은가를 다시금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서울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거리와 광장에 떨쳐 나온 초불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를 성토하고 『가자! 청와대로』, 『너희는 고립됐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청와대를 향하여 시위행진도 진행하였다.

비록 경찰의 저지선에 막

혀 청와대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지만 수십만 시민들이 추켜든 초불은 악녀가 동지를 틀고 있는 청와대를 에워싸고 활활 타올랐다.

지금 언론들과 검찰조사 등을 통해 이번 특대 형추문사건의 기본장본인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4월 인민봉 기와 6월 인민항쟁이 보여 주듯이 민주주의를 여지없이 짓밟는 독재자들의 운명은 하나같이 비참하며 민심에 의해 독재권력이 꺼꾸러지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에 틀고 앉아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의 초불투쟁을 비롯한 퇴진운동은 더 거세차게 번져질것이고 그 불길속에 악의 무리들이 태죽는것은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

리영근

《가자! 청와대로》

불의와 독재를 용납치 않는 견결한 항거정신

온 남조선땅이 반박근 혜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리념과 세대, 계급과 계층, 성별과 나이, 종교와 지식정도, 지역 등

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계

층의 광범한 인민이 박근혜 퇴진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다.

그야말로 전인민적

인 『정권』 반대투쟁, 민중항쟁인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수십년 동안 남조선에서는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는 대중적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져왔으며 언제나 끝까지 싸워 승리한 것은 인민대중이었다.

1960년 4월인민봉기는 광범한 인민들이 참가하여 승리를 거둔 대중적반미구국항쟁의 하나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1960년 3.15부정선거

에서 리승만 『정권』이

테로와 협잡을 감행하여 『당선』을 날조한데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도처에서 반 『정부』 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시위투쟁은 곧 봉기로 넘어갔으며 서울, 대구,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서울의 대학생들은 비록 한 봉기자들은 『썩은 정치 물려가라!』, 『리승만 『정권』 태도하라!』 등의 구호를 들고 군경들을 물리치면서 『중앙청』으로

밀려갔으며 악명 높은 『반공회관』과 서울신문사 및 『자유당』 본부를 불살라버리는 등 항쟁의 불길을 높이였다. 마침내 리승만 『정권』은 꺼꾸리지고 리승만은 바다건너 이국땅으로 쫓겨가 비참한 운명을 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는 1980년 5월 광주인민봉기도 있다.

1980년 3월부터 남조선전역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진 청년 학생들과 각계층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은 전두환군사깡패 도당이 권력탈취를 위해 『5.17파쑈폭거』를 단행하고 광주시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학살하는 것을 계기로 대중적인 광주인민봉기로 확대발전하였다. 봉기자들은 순에 무장을 들고 땅크와 장갑차, 무장직승기까지 앞세운 살인공정부대와 맞서 용감히 싸웠다. 비록 봉기가 미국과 군사독재 『정권』의 야수적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실패하였지만 불의와 압제를 용납치 않고 투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안아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견결한 항거정신과 영웅적인 투쟁기상을 온 세계에 뚜렷히 시위하였다.

미국의 막후지원 밀에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 역도가 1987년에 들어와 『호헌』을 통해 장기집권기도를 드러내었을 때에도 남조선인민들은 참고참아오던 분노를 터뜨려 6월인민항쟁의 불길을 일으켰다.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구호밑에 진행된 항쟁에는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과 사무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이 참가하여 미국과 독재 『정권』을 전률케 하였다.

각성된 인민이 하나로 뭉쳐 분노의 민심을 터쳐 거리에 떨쳐나와 굽함없이 투쟁할 때 그 어떤 독재의 아성도 허물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이 투쟁과 항쟁의 역사에서 찾은 귀중한 진리이다.

이 진리를 새기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간직하였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수년간 권력을 마구 통단하여 갖은 범죄를 다 저지른 박근혜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민주의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대규모초불투쟁을 지금 완강하게 벌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인민을 이기는 독재자는 없으며 불의와 매국은 망하기 마련이다.

인민들의 대중적인 항거에 의해 시시각각 운명이 꺼져가는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지금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노호하는 초불바다

김윤식

더는 없다 민족의 심판을 피할 길은

보라!

로동자도 농민도 대학생도 박근혜의 숨통인 양 초불 움켜잡았다 시국선언 랑독하는 백발의 로교수도 종교인도

나어린 학생들도 항거의 절규 목ter지게 웨치고 있다

온 남녘에 타번진 거대한 초불바다 이는 박근혜 역도를 물어버릴 죽음의 불무덤

산천이 들썩하게 울리는 합성은 씩어빠진 청와대 밀뿌리채 뒤흔드는 장쾌한 폭음!

아무리 교활한 권모술수 기만술책도 저지른 만고죄악 결코 덮지 못하리 온갖 비리 부패와 부정의를 산산이 태우며

남녘의 초불은 꺼지지 않으리 박근혜 허수아비 깡그리 태워버릴 때 까지

아, 남녘의 노호하는 초불바다여!

박근혜 퇴진 운동의 의미와 전망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참사와 기자가 나눈 대담

대담

되어왔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2002년의 대규모 반미초불시위, 2008년의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초불시위 등이 벌어졌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은 불의를 용납치 않는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항거운동의 힘속이고 그 최절정에 달한다고 할수 있다.

기자: 초불시위투쟁의 참가자들의 구성과 그 규모를 놓고 보아도 응당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본다.

한국철(참사): 그렇다.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퇴진투쟁은 전인민적인 항쟁의 성격을 띠고 날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는 4.19인민봉기와 6월인민항쟁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항쟁이 연대를 이어 계속

록하였다. 이것은 1987년 6월인민항쟁 참가자수와 맞먹는 사상 최대 규모의 참가인원이다. 19일에 진행된 4차집회때에도 서울과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백수십만명에 달하는 각계층 인민들이 참가하여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의 구성도 애당장 정치인으로부터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물론 대학생, 로동자, 농민, 언론인, 예술인 등 사회의 모든 계층을 포괄하고 있으며 지어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적극 참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에게 투표한 60, 70대로 인들을 비롯

여 지난 기간 박근혜를 지지하던 절대다수의 사람들까지 시위에 참가한 것이다. 남조선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금 박근혜의 지지률은 불과 4%도 되나마한 상태이다. 오죽하면 시위현장에서 박근혜가 이룬 유일한 『공약』이 『국민의 대통합』이라는 야유와 조소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겠는가.

그러나 지금 박근혜는 어떻게 하나 권력의 자리를 불들고 앉아 인민들의 기름을 짜내여 저들의 배를 불리우는 한편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을 기어이 말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당은 최근 검찰이 초보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낸 범죄혐의에 대해 전면 부정하면서 시일을 끄는 방법으로 인민들의 초불시위투쟁을 유야무야해보려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의 이 최후발악은 불은 불에 기름을 뿐인 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동이다.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오는 26일에 또다시 대규모 초불시위투쟁을 벌릴 것을 계획하고 단합된 힘으로 박근혜를 기어이 퇴진시킬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기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퇴진투쟁이 청

운 퇴진이라는 것도 없다. 만인을 경악케 하는 엄청난 대역죄를 지은 박근혜는 무조건 권력을 내놓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 감옥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4월인민봉기와 6월인민항쟁이 보여 주듯이 민주주의를 여지없이 짓밟는 독재자들의 운명은 하나같이 비참하며 민심에 의해 독재권력이 꺼꾸러지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에 틀고 앉아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의 초불투쟁을 비롯한 퇴진운동은 더 거세차게 번져질것이고 그 불길속에 악의 무리들이 태죽는것은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

리영근

온 남녀 이 박근혜 타도에 나섰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반박근혜 투쟁이 날을 따라 더 옥 거세차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일에 이어 19일에 또 다시 남조선 전지역에서 제4차 범국민 행동이 일제히 전개되었다.

특히 이번 행동에는 남조선 각지의 수많은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박근혜 퇴진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상에 대해서, 더욱이 정치를 알기에는 너무도 어린 학생들까지 거리로 떨쳐나온 것이다.

순진하고 어린 눈동자에 비친 사회현실이 너무도 억이 막혔기 때문이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물가대란』으로 한숨을 쉴 때에도 오빠, 언니들이 실업난으로 눈물을 흘릴 때에도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이라는 일루의 희망만은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인이 경악한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은 이들의 가느다란 희망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특히 박근혜를 등에 업고 부정과 특혜로 대학에 입학한 정유라의 온갖 추문이 드러나면서 어린 학생들의 분노와 절망감은 더욱 커졌다.

모두의 희망을 막아간 살인『정부』

투쟁에 떨쳐나온 학생들은 자기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데 정치통락의 딸정 유라는 대학입학과정 등에서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들을 듣고 『이려려고 공부하는가 하는 자피감이 들었다.』며 울분을 터치고 있다.

누구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등대고 1년에 17일 만 학교에 출석해도 우수한 『학점』을 받는데 자기들은 1년내내 빼빼지게 공부해도 진학의 문은 점점 더 좁혀만지니 허탈감에 빠지고 희망을 잃은 청소년 학생들이 너도나도 울분을 터치며 초불을 드는 것은 당연하다.

권력의 힘이 작용하는 특혜가 있는 한 열심히 노력해도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중, 고등학생들의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사회현실이었으며 그것은 학생들에게 소중한 희망을 빼앗아갔다.

남조선에서 희망을 빼앗긴 것이 어디 중, 고등학생들뿐인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청

년들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류행어가 결혼, 런애 등은 물론이고 꿈과 희망, 삶까지 모든 것을 포기 한다는 것을 뜻하는 『N포 세대』이다.

가장 활렬하고 꿈과 희망이 넘쳐야 할 청년들이 『국민복지시대』를 운운하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가장 비참한 세대가 되었다.

박근혜가 『대선』 때 약속했던 『반값등록금』은 『미친 등록금』이 되여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막대한 빚까지 걸어지면서 고달프게 대학공부를 했지만 졸업의 문턱을 넘자마자 엄청난 빚만 진 실업자가 되는 것이 오늘 남조선 청년들이다. 청년들의 삶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들 어놓고도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에게 박근혜는 『중동으로나 가라.』고 야멸차게 내쏘았으니 그게 사람이 할짓인가.

로동자들의 처지도 다를 바 없다.

박근혜가 『일자리 창출』의 미명 하에 벌려놓았던 『로동개혁』이라는 것은 재벌들을 위해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섰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겸찰이 최순실 등이 『대통령』과 『공보』 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종간수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범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은 민심의 분노, 초불의 힘이 가져온 응당한 귀결이다.

앞으로 겸찰의 수사가 어느 계단까지 나가겠는가 하는데 대해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는 겸찰의 종간수결과 발표가 당연하지만 박근혜의 치명적 악점인 뢰물수수범죄를 포함한 온갖 죄행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는데 대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항간에서 톤의 되고 있는 박근혜의 『7시간의혹』, 약물복용의혹에 대해서도 여론은 겸찰이 끝바로 수사하여 진실을 명쾌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 민심은 겸찰이 지난 시기 『정치겸찰』, 『권력의 시녀』라고 불리워온 불명예스러운 땡지를 이번 기회에 파연 멀수 있겠는지 지켜보고 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수 있다. 박근혜의 부친이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에 대한 중간수결과를 발표하였다.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비선 실세』인 최순실과 전 청와대 수석이었던 안종범 등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직권남용, 강요,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

『대통령』의 범죄공

모사실을 밝힌 겸찰의 발표가 있은 후 남조선 사회가 죽기마蠹듯 하는 속에 22일에는 법무부 장관 김현웅과 청와대 민정수석 최재경이 사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 남조선 겸찰은 박근혜를 퍼의 자신분으로 수사하면서 여러 차례 조사를 거부한 그를 오는 29일 마지막으로 대면조사하며 끝내 거부할 경우 특별 검사에게 넘기겠다는 립장을 밝히고 있다.

남조선 겸찰이 이처럼 이번 추문 사건에 대해 지난 시기와는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박근혜의 퇴

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남조선 민심과 그들이 추켜든 초불의 힘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근혜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에 터진 정윤희 『국정』 개입 사건을 비롯하여 여리차례에 걸쳐 밝혀질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조선 겸찰은 청와대의 지시대로 정윤희에 대한 감찰보고서 작성경위와 류출경위만 따지면서 사건의 초점을 판데로 돌려 유야무야해버렸다.

그러나 이번에 터진 추문 사건은 범죄자들의 신분과 사건의 증거들이 명백하여 그냥 덮어버릴 수 없는 형편이다.

거기에다가 100만명 이상의 각계층 사람들에게 청와대 앞의 광화문 광장에 주말마다 모여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초불시위를 벌리고 시국선언들을 련이어 발표하는 등 인민들의 분노는 극한 점을 넘어서었다.

민심에 힘을 얻은 애당들은 물론 『새누리당』의 원들까지 박근혜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서 탄핵을 위한 준비 사업에 착수하였다. 며칠 전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찬성비율이 무려 80%를 넘어

된 박근혜의 가련한 물

풀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박근혜에 대한 지지률은 4%까지 떨어졌으며 전통적인 지지층은 물

들은 옥을 벼르고 있다.

박근혜의 『호위무사집단』, 『돌격대』, 『결사대』라고 일컬는 『새누리당』도 완전한 봉파 상태에 처했으며 당내부

싸주겠다고 나서는 변호

인들조차 없어 그야말로 고립무원한 상태에 놓여 있는 역도년이다.

이러한 속에서 박근혜의 죄행을 묵인하고 비호해나선다면 역도와 함께 순장될 것은 뻔한 리치이다.

이것만 보아도 고립무원한 박근혜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마 박근혜는 이렇게 경악해 할 것이다. 『이젠 너까지도…』

김명성

만들어내고 임금삭감으로 동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살인적인 로동개악이다.

이번 특대형 추문 사건의 진상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과 대기업의 검은 유착 관계도 날날이 밝혀지게 되었다. 대기업들에게서 엄청난 돈을 뜯어낸 대가로 박근혜 일당은 동자들을 죽이는 정책 아닌 정책을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성과년봉제』를 비롯한 1%의 특권층만을 위한 파쑈적이며 반인권적인 동개악책들은 동자들을 실업과 죽음의 함정에 밀어 넣음으로써 그들에게서 생존의 권리와 미래에 대한 꿈마저 송두리채 빼앗아갔다.

로동자들이 자기들의 피땀을 빨아먹은 권력과 재벌들의 착취행위를 규탄하며 위험한 고공통성을 벌리고 파업과 시위를 벌리고 파업과 시위를 벌리고 우연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의 살인 정치 하에서는 농민들의 삶의 희망도 여지없이 짓밟혔다. 박근혜가 『일자리 창출』의 미명 하에 벌려놓았던 『로동개혁』이라는 것은 재벌들을 위해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섰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겸찰이 최순실 등이 『대통령』과 『공보』 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종간수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범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은 민심의 분노, 초불의 힘이 가져온 응당한 귀결이다.

앞으로 겸찰의 수사가 어느 계단까지 나가겠는가 하는데 대해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는 겸찰의 종간수결과 발표가 당연하지만 박근혜의 치명적 악점인 뢰물수수범죄를 포함한 온갖 죄행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는데 대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항간에서 톤의 되고 있는 박근혜의 『7시간의혹』, 약물복용의혹에 대해서도 여론은 겸찰이 끝바로 수사하여 진실을 명쾌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 민심은 겸찰이 지난 시기 『정치겸찰』, 『권력의 시녀』라고 불리워온 불명예스러운 땡지를 이번 기회에 파연 멀수 있겠는지 지켜보고 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라고 말하였다. 전 『국무총리』는 대학에 다닐 때 박정희의 『유신』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학생운동에 참가하였는데 그의 딸 퇴진 운동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박정희, 박근혜가 문이 력사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국민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끌려나오는 순간 그때는 바로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2일 기독교교회협의회

가 겸찰의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박근혜가 겸찰의 수사에 응하고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기를 선언한 이상 국민이 끌어내려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온 국민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하는 판에 공범자, 부역자집단인 『새누리당』도 박근혜를 응호한다면 국민이 먼저 여당을 심판해야 한

다고 말하였다.

21일 전라북도에서 26개

단체가 망라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기독교 공동체 결성되었다.

결성식에서 발언자들은

집권기간 온갖 부정부패

를 저지르며 무능력과 무

책임 한 태도로 이 땅을 혼란에 빠뜨리고도 책임은

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박근혜를 퇴진 시키면 퇴진을 위한 투쟁에 나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은 박근혜 악녀이다.

뿐만 아니라 동족대결 광

신자가 매일 같이 벌려놓은 전쟁연습 소동 때문에 농민들은 제땅에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 박근혜가 벌려놓은 『싸드』 배치 놀음 때문에 유명한 성주 참외는 『싸드 참외』로 되고 농민들은 생계가 더욱 막혀져 『정권』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교수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집단적인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정국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사회 전체가 우울증으로 빠져 자칫 국가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근혜는 여생이라도 마음편히 보내고 싶어하는 로인들의 희망도 악착스레 빼앗아갔다.

이미 집권한 첫해에 박근혜는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구실을 빌여 『로인기초년금』을 폐기해버리었다.

이후 다 셀 수 없는 것이 박근혜가 지난 4년간 지은 엄청난 죄악들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래

일에 대한 희망은 매우 소

중하다. 그것이 없다면 삶은 암울하고 지옥으로 될 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수년간 남조선인민들의 권리와 삶을 짓밟고 소중한 희망마저 모두에게서 앗아갔다.

남조선을 오늘이 불행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는 암흑사회로 만들 어버렸다.

한가닥의 희망마저 깡그리 빼앗긴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에 대한 분노와 함께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교수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집단적인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정국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사회 전체가 우울증으로 빠져 자칫 국가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조선 사회를 희망이 없는 암흑의 사회로 만들고 절망과 탄식의 한숨소리, 『이게 나라냐.』는 민심의 분노가 터쳐나오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근혜이다.

남조선 각계에서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죄목은 이 땅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린 것』이라며 박근혜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본사기자 황진 옥

이루다 셀 수 없는 것이 박근혜가 지난 4년간 지은 엄청난 죄악들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래일에 대한 희망은 매우 소

중하다. 그것이 없다면 삶은 암울하고 지옥으로 될 것이다.

남조선 사회를 희망이 없는 암흑의 사회로 만들고 절망과 탄식의 한숨소리, 『이게 나라냐.』는 민심의 분노가 터쳐나오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근혜이다.

친일매국의 피는 속일수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일본파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3일 남조선보수당국은 인민들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 대해서 불구하고 남조선일본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지난 10월 27일 남조선당국이 일본파의 군사정보보호협정협상을 재개하기로 발표한 때로부터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막을 드는 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의 일본파의 군사적 결탁을 드는 이들이 아니다.

지금 남조선보수당국은 일본파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성사시키는데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일본파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는 것은 민족의 백년숙적과 결탁하여 동족을 암살하려는 극악한 반민족적 망동이며 그렇지 않아도 긴장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정세를 최악의 위기에도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행위이다.

지금 일본은 군사대국화에 방해물이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기 위한 헌법개정과 최신 전쟁 장비들의 개발도 입

협정은 한세트나 다름없다.》, 《두 협정이 효과를 내려면 함께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떠든 것은 이를 그대로 실증해준다.

박근혜당이 온 겨레의 규탄에 불구하고 일본파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도 모자라 상호군수지원협정체결을 또 획책하고 있는 것은 탄핵여론으로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기 전에 미국, 일본, 남조선파의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강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적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일본파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는 것은 민족의 백년숙적과 결탁하여 동족을 암살하려는 극악한 반민족적 망동이며 그렇지 않아도 긴장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정세를 최악의 위기에도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행위이다.

지금 일본은 군사대국화에 방해물이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기 위한 헌법개정과 최신 전쟁 장비들의 개발도 입

박근혜가 남조선의 력

을 다그치는 한편 《자위대》를 전투형부대로 개편하면서 해외침략의 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데 이어 호상군수지원과 관련한 협정까지 체결되는 경우 일본이 협정 여행을 코에 걸고 신성한 우리 강도에 재침의 폐물을은 발자국을 거리낌 없이 찌게 될 것은 불보듯 자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신성한 우리 민족의 땅인 독도를 저희들 것이라고 우기며 강탈할 기회만 찾는 사무라이 일본이다. 사대대국에 명줄을 걸고 다 죽어가면서도 일본의 재침 열기에 부채질만 해주는 박근혜와 같은 역적무리가 이 땅의 푸른 하늘 아래 살아숨쉬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일본파의 군사협정체결을 예상하는 것은 여기에는 《국가안보》를 내세워 특대형부정부폐행 위로 자기에게 쏠리는 민심의 초점을 북에 돌리고 《국정장악》을 내외에 파시하여 권력을 연장해보려는 음흉한 흥심도 있다.

박근혜가 남조선의 력

대 통치배들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일본파의 군사협정들을 림종의 위기에 처한 지금에 와서 기어코 강행하려고 날뛰는 것은 《특등일본인》으로 자처하던 박정희역도의 친일유전자를 고스란히 넘겨받은 역도년만이 저지를 수 있는 극악한 폐국적 행위이다. 역시 예비에게 물려받고 천일기문의 딸인 최순실의 조종을 받아온 박근혜의 친일매국의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다.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전략적요구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 보려는 일본의 파렴치한 재침야망에 추종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일본파의 군사적 결탁은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을 시시각각 몰아오고 있다.

사대대국근성이 빼속까지 들어찬 박근혜역적 무리들에 의해 조선반도가 20세기초와 같이 외세의 각축전장이 되고 그 비참한 희생물로 되는 것을 우리 민족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좋은 일로 이름을 남기는 고사하고 예비의 뒤를 따라 우리 민족사에 더러운 오점만 찍는 박근혜와 같은 역적무리들이 잘못은 혁사의 오물통밖에 없다.

김경선

얼마전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3위 원회하는데서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이 강압채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박근혜역적 폐당은 《북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경고》니,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촉구》니 뛰어니 하고 고아대고 있다.

이것은 인민중종, 인민 사랑의 정치가 활짝 꽂퍼나는 우리 공화국의 밝은 현실에 눈이 부셔난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이며 제 집안을 최악의 인권불보지, 부정부폐의 서식장으로 만든 특대형 반인륜 범죄자들의 파렴치한 여론기 만책동이다.

이번 《결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정치화하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출발한 모략과 공모결탁의 산물이다. 그것은 거짓과 날조, 모략과 협잡으로 일관된 《조사위원회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렬거한 것으로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문서이다.

인민대중의 운명과 권리를 책임지고 끊임없이 보호증진시켜나가는 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와 압력 속에서도 공화국정부는 인민 생활향상과 보다 훌륭한 미래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 얼마전 함북도 북부 폐허복구 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가 이루어되고 사회주의 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훌륭히 일떠선 가운데 행복의 웃음소리, 배움의 종소리가 높이 울려 퍼진 것도 바로 공화국의 인민사수전, 인민 복무전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상상 류례 없는 특대형 권리부폐 사건인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은 인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 없이 저들의 리기적 목적, 부귀와 향락실현에만 혈안이 된 박근혜 《정권》의 실체, 남조선의 추악한 인권실상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여야, 보수와 진보를 가림없이 온 남조선땅에 풀어버린 《박근혜 하야》, 《박근혜 퇴진》 투쟁의 도가니 속에 박근혜는 사실상 《숨쉬는 미아리》나 다른 없는 신세가 되었다.

이런 산송장, 극악한 인권범죄자들이 다 무너져가는 집안에서 주제넘게 그 누구의 《인권》이니, 《개선》이니, 《조치촉구》니 하고 역겹게 놀아대는 끌이야말로 삶은 소가 웃다 꾸미 터질 일이다.

박근혜역적 폐당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과 같은 범죄적인 대결책 동에 매여 달릴 것이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한결 같은 요구대로 하루빨리 권리의 자리에서 내려와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본사기자 최광혁

하반편이 되고 말았다고 대놓고 비평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가운데 《JTBC》

와 《고발뉴스》, 《국민일보》를 비롯한 남조선의 언론들이 박근혜가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장기

였다.》,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것도 조각이 맞춰진다.》고 하면서 《대통령》

은 커녕 정상인 간도 못되는 박근혜를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고 분노의 함성을 렬일 터뜨리고 있다.

수백만 초불의 해일이 청와대를 당장 덮쳐들 판인데 아직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잠이 보약》이라느니, 《강력한 국정운영의지》

니 하는 멍청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박근혜 애말로 백약이 무효인 선천적기형아, 백치, 약물중독자인 것이다.

발달장애 상태의 늙은 아이, 폐기처분해야 할 인간오작俑이 갈곳은 명백하다.

정치적으로는 물론 인간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게 된 박근혜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정기혁

정상 인간이 아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 《발달장애자》라고 평가하는 글을 실으면서 그의 생물학적 나이는 예순이 넘은 할망구이지만 정신년령은 아직 중학교이 하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때 《한나라당》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박근혜의 입》으로까지 불리웠던 전려옥은 년에 대해 《대통령》이 될 수도 없

지 않은 상태, 《발달장애자》라고 평가하는 글을 실으면서 그의 생물학적 나이는 예순이 넘은 할망구이지만 정신년령은 아직 중학교이 하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때 《한나라당》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박근혜의 입》으로까지 불리웠던 전려옥은 년에 대해 《대통령》이 될 수도 없

지 않은 상태, 《발달장애자》라고 평가하는 글을 실으면서 그의 생물학적 나이는 예순이 넘은 할망구이지만 정신년령은 아직 중학교이 하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때 《한나라당》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박근혜의 입》으로까지 불리웠던 전려옥은 년에 대해 《대통령》이 될 수도 없

지 않은 상태, 《발달장애자》라고 평가하는 글을 실으면서 그의 생물학적 나이는 예순이 넘은 할망구이지만 정신년령은 아직 중학교이 하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때 《한나라당》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박근혜의 입》으로까지 불리웠던 전려옥은 년에 대해 《대통령》이 될 수도 없

지 않은 상태, 《발달장애자》라고 평가하는 글을 실으면서 그의 생물학적 나이는 예순이 넘은 할망구이지만 정신년령은 아직 중학교이 하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때 《한나라당》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박근혜의 입》으로까지 불리웠던 전려옥은 년에 대해 《대통령》이 될 수도 없

간 복용하여 종독자로 되었다고 하면서 년이 《세월》 호참사 때 7시간 동안 행처불명이 된 것도 얼굴 성형수술 후 마취제를 쓰고 잠을 잤기 때문이라고 련이어 꼭로하였다.

이런 저능아, 약물중독자를 지금껏 《대통령》으로 섭겨왔다는 것에 너무도 어처구나가 없고 분통이 터져 온 남녘 땅이 분노의 치를 렬고 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는 단순한 약물복용자가 아니라 약물중독자다.》, 《연설할 때마다 복합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것은 프로포폴 중독 때문이

였다.》,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것도 조각이 맞춰진다.》고 하면서 《대통령》

은 커녕 정상인 간도 못되는 박근혜를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고 분노의 함성을 렬일 터뜨리고 있다.

수백만 초불의 해일이 청와대를 당장 덮쳐들 판인데 아직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잠이 보약》이라느니, 《강력한 국정운영의지》

니 하는 멍청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박근혜 애말로 백약이 무효인 선천적기형아, 백치, 약물중독자인 것이다.

발달장애 상태의 늙은 아이, 폐기처분해야 할 인간오작俑이 갈곳은 명백하다.

정치적으로는 물론 인간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게 된 박근혜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정기혁



밥줄 떨어질가봐 《보호》 막을 친다

가 떨어져나간 지금 박근혜가 의지하는데 라고는 얼마 안되는 보수집권세력이다.

그중에서도 현 비서실장 한광우, 민정수석비서관 최재경, 정무수석비서관 허원제 등 청와대보좌진은 박근혜가 제일 믿는 기동이다.

대진역은 뱀처럼 시르죽었던 박근혜가 어떻게 되어 물먹은 미역처럼 살아 꿈틀거리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닭그네사

가 기록한 풋병 아리들의 《눈물겨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 것들이 다 산 정치송장에 불과한 박근혜를 위해 《헌신》하는 목적이 다른데 있지 않다. 대가리가 익으면 귀도 익기 마련인 것처럼 박근혜가 범죄자로 처벌받는 경우 팔다리 노릇을 해온 저들의 운명도 달리 될수

가하고, 모든 꿈과 희망을 포기한 《7포세대》, 《삶포세대》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오죽했으면 《지옥 같은 세상》을 의미하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온 남조선땅에 류행이 되고 《망한민국》, 《개한민국》을 저주하며 《탈남》하는 행렬이 고리를 물겠는가.

사상 류례 없는 특대형 권리부폐 사건인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은 인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 없이 저들의 리기적 목적, 부귀와 향락실현에만 혈안이 된 박근혜 《정권》의 실체, 남조선의 추악한 인권실상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여야, 보수와 진보를 가림없이 온 남조선땅에 풀어버린 《박근혜 하야》, 《박근혜 퇴진》 투쟁의 도가니 속에 박근혜는 사실상 《숨쉬는 미아리》나 다른 없는 신세가 되었다.

이런 산송장, 극악한 인권범죄자들이 다 무너져가는 집안에서 주제넘게 그 누구의 《인권》이니, 《개선》이니, 《조치촉구》니 하고 역겹게 놀아대는 끌이야말로 삶은 소가 웃다 꾸미 터질 일이다.

박근혜역적 폐당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과 같은 범죄적인 대결책 동에 매여 달릴 것이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한결 같은 요구대로 하루빨리 권리의 자리에서 내려와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본사기자 최광혁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분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매일같이 박근혜, 최순실 추문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지면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남조선 겸찰이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우던 청와대 전 수석비서관 안종범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21일에도 언론들은 남조선력사상 처음으로 박근혜가 『피의자』(범죄혐의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박근혜는 『국정』 통단사건에 공범이 아닌 주범이라고 대서특필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겸찰의 중간수사결과만으로도 박근혜의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의 퇴진이나 탄핵은 시간문제라고 전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흑막을 파헤치는 보도경쟁의 대렬에는 진보언론들뿐 아니라 보수언론들도 서 있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박근혜와 『사자동고』를 맷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호위무사』가 있다.

다름 아닌 『새누리당』 대표 리정현이다.

이자는 남조선인민들의 분노가 하늘땅을 진감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박근혜에 대해 『사리사욕이 없는분』, 『신뢰할수 있는 『대통령』』이니 뭐니 하면서 듣기도 역겨운 나발을 불어대다 못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운명공동체라느니, 『침몰위기에 처한 배에서 먼저 뛰여내리는 선장이 되지는 않겠다.』느니 하고 두발을 뻗쳐대고 있다.

나중에는 『날 보고 예수를 부인한 유다가 되라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이 독재 『정권』의 어용나팔수로서 권력을 비호하는데 앞장서왔다. 현 허수아비 박근혜 『정권』 조작에도 진실을 감추고 여론을 기만한 보수언론들의 책임이 크다.

이러한 보수언론들이 오늘에 와서 박근혜 『정권』에 등을 돌려대고 있는 것은 주목되는 일이다. 여기에는 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저들을 지지한 보수언론에도 칼을 뱉은 박근혜에 대한 앙심이 깔려있고 한갓 무당에 놀아나 『국정』을 통락한 박근혜에 대한 민심의 분노 기운을 더는 외면할수 없게 된 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또 그 죄악이 엄청나 살가망이 없는 박근혜를 버리고 새로운 보수 『정권』을 탄생시켜 악취나는 보수의 살길을 열어보려는 탄도 깔려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보수언론들이 박근혜, 최순실 추문사건의 진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다 망한 박근혜 『정권』의 『우군』, 『파수군』이 되어 썩은 『정권』과 함께 『순장』 되기보다는 분노한 민심에 편승하는 것이 살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와 진리를 대변하는 언론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권력의 뒤만 쫓는다면 그것은 언론

아닌 사이비언론으로 민심의 지탄만 받을 것이다. 오늘 분노한 남조선민심은 썩을대로 썩은 남조선의 정치풍토를 완전히 갈아엎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며 4차례 걸쳐 진행한 대규모적인 초불시위투쟁은 그야말로 썩을대로 썩은 현 정치풍토에 대한 쌓이고 쌓인 울분의 폭발이다.

이번 추문사건은 최순실과 몇몇 청와대, 행정부족들의 개인비리사건이 아니라 보수세력의 대표자인 박근혜가 빚어낸 특대형권력부폐사건이다.

박근혜 『정권』은 철두철미 부정부폐를 생리로 하는 보수에 그 뿐리를 두고 있다.

남조선을 1%의 가진자가 99%의 인민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노예사회,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어놓은 박근혜가 청와대에 그 냥 등지를 들고 앉아있는 한 남조선은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있다. 남조선민심은 이미 박근혜에게 사형판결을 내렸으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다.

남조선언론들은 민심의 분노를 똑바로 알고 정의와 진실만을 봇에 담아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철

세상을 소란케 한 대정치추문사건으로 파멸의 위기에 처한 박근혜당이 친미주구의 본색그대로 미국상전에 기대어 살아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얼마전 미국대통령 선거에서는

『미국우선주의』를 고창한 공화당 후보 트럼프

가 당선되었다. 이렇게 되자 박근혜는 황급히 미국대통령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는가 하면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한다.

박근혜가 남조선인민들의 거의 대부분인 95%의 버팀속에 『식물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그 무슨 『축전』이니, 전화통화니, 『정부』 대표단과 『새누리당』 대표단을 무어 미국에 파견한 다느니 뭐니 하면서 아양을 떠는 한편 뒤에 돌아앉아서는 미국의 선거결과가 또 하나의 『외환』이니 뭐니 하며 아부재기를 치고 있다.

박근혜가 미국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가장 당황하고 불안해 하는 것은 『미국우선주의』를

친개 모습그대로이다.

이로써 박근혜역적무리들은 미국이 없으면 하루도 못사는 것처럼 여기는 가련한 식민지노복이고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풀 수에 찬 극악한 대결광신자들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떠드는 공화당후보의 당선으로 다른 아닙니다. 미국과의 『동맹』과 『북핵 압박공조』의 기틀이 혼들리지 않겠는가 하는데 있다.

이로부터 박근혜는 지금 미국대통령 선거 결과

팀을 가동하여 〈한〉 미동맹강화문제를 사전조율하겠다.』고 떠들면서 현재는 박근혜퇴진을 웨치며 초불시위를 벌릴 때가 아니라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국정에서 추악한 마녀의 손을 치워라.』, 『국민 95%가 지원하는 범죄자는 하야하라.』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민심이다. 거대한 초불시위투쟁으로 퇴진과 하야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국정공백』이니 뭐니 하며 권력의 자리에 그냥 빼치고 앉아 사대와 동족대결로 잔명을 채우려고 발악하는 이런 마귀년이 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거예에게 차례질것은 더 큰 불행과 민족적수치감뿐이다.

박근혜가 미국에 매달려 어떻게 하나 권력을 부지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나 민심의 사형판결을 받은 역도년의 운명은 그 누구도 전져주지 못한다.

장혁철

미국에 매달려보아야...

여지없이 드러났다.

문제는 박근혜역적무리들이 미국에서의 대통령 선거를 총체적위기에 빠진 저들의 처지를 보면하기 위한 계기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앞에서는 『축전』이니, 전화통화니 하며 『존재감』을 세워보겠다고 추래를 부리었으니 세상을 웃기는 또 하나의 정치만화이다.

가판은 박근혜가 제 명이 다 된 지금에 와서도 미국상전을 바라보며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아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그 무슨 『축전』이니, 전화통화니 하는데서 남조선미국 『동맹』 강화를 운운하고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대통령당선자측과 접촉하며 『북핵공조』와 『제재, 압박』을 구걸해나선 것이다.

사설은 박근혜가 국민의 퇴진요구를 한사코 외면하더니 겸찰조사도 거부하고 겸찰의 수사결과도 부인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박근혜는 퇴진도, 수사도, 수습도 다 거부하고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고 사설은 규탄하였다.

사설은 박근혜가 법적 책임을 모면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국정』 통락의 주범으로 규정한 겸찰수사결과가 나오자 겸찰의 조사를 아예 거부하였

다고 폭로하였다.

겸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우기고 있지만 이것은 너절한 평계라고 하면서 사설은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측근들의 수첩과 손전화기 등에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확인되었다고 깊혔다.

여러 가지 변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평계와 변명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사설은 청와대가 겸찰 대신 종립적인 특검수사에 대비하겠다는 것도 시간끌기라고 하면서 지금의 태도라면 박근혜는 특검수사가 나오자 겸찰 단죄하였다.

사설은 박근혜가 겸찰을 치는 통일부 장관 홍용표도 그러한 미물이고 박근혜가 시킨대로 친일매국적인 일본파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과 『싸드』 배치에 날뛰는 국방부 장관 한민구나 외교부 장관 윤병세도 같은 뜨물통의 씨끼기들이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흥녀들, 평화적인 초불집회 참가자들을 『란동세력』이라 욕하며 『땅크로 죽이고 죽으로 죽이고 군대가 나와서 죽이자.』고 광란적으로 고아대는 『어버이련합』의 몇 안되는 늙다리들이 그려루한 보수멸거지들이다.

박근혜는 이미 민심의 초불바다에 매장된 숨쉬는 화석에 불파

함께 죽을 운명

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동에 닿지도 않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리정현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은 지금 그가 노는 꼴이 다 말해주고 있다.

편들만 한 사람을 편들어야지 박근혜가 과연 어떤 추물인가. 『국정』을 통제로 말아먹고 온갖 엄청난 죄악을 다 저질러 보수층을 비롯한 온 남녘계의 저주와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다 죽은 정치송장이다. 그런 악귀, 인간 추물을 계속 비호두둔하며 『정절』을 운운하는 리정현이야말로 쓸개빠진 자이고 그런 자가 아직

는 대표행세를 하니 『새누리당』이라는 온전한 당이겠는가.

썩하면 『무수저로 말단직부터 몇십계단 올라왔다.』느니,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니, 『오로지 국민을 위한다.』느니 뭐니 하며 낯간지러운 너두리를 쳐쳐대던 리정현이 오늘날에 와서는 박근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앞장에서 막아나서는 악녀의 『충실』한 『호위무사』로 자처하고 있으니 이자 야말로 미친년의 치마자락에 놀아나는 무지한 환관나부랭이고 비렬한 정

치간상배인 것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리정현이 놀아대고 있는 꼴을 두고 『더러워서 말이 안 나간다.』, 『너 잘 논다. 같이 죽고파 몸살났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함께 죽여주마.』라고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하긴 박근혜의 입김에 의해 『새누리당』 대표직까지 계바라오르고 네에 대한 『충성』에 정신파육체를 깡그리 쏟아붓고 있는 리정현이 고보면 아무래도 박근혜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 운명인 것 같다.

제명을 다 산 박근혜와 함께 충실한 노복인 리정현도 인자 더러운 명을 끌낼 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다 살구멍을 찾아 탈출하고 있는 때에 아직도 『숨 쉬는 미이라』나 다름없는 『식물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 되여 『안보위기』 조작으로 동족대결과 친일에 혈안이 되여 날뛰는 걸 보니 한민구야말로 『무당정권』에 혼이 빠져 미쳐도 여간 미치지 않았다.

미친개는 죽는 순간까지 물겠다고 짓어대는 법이다.

미친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되여 절명하는 순간까지 동족대결과 친일을 일삼는 사대제국 노한민구도 박근혜와 함께 혁사의 무덤에 영원히 매장해버려야 할 인간쓰레기이다.

총파산의 운명에 처한 『박근혜』 호에서 저저마

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정치송장인 박근혜에 대한 민심의 평이다.

그 4%속에 어떤 자들이 있는가.

첫손가락에 찍히는 것은 아마 『새누리당』의 『꼴통친박』 들일 것이다.

그 속에는 아직까지도 박근혜를 『사리사욕이 없는 문』이라고 『옹호』하는데 결사적인 『새누리당』 대표 리정현이 있고 『초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김진태 그리고 최순실의 입김에 의해 『국회』 의원자리를 따낸 몇몇 『핫바지』 들이 있다.

북남관계를 완전 결단낸 박근혜를 위해 『진정성 만은 밀어주길 바란

다.』는 황당한 영녀리를 치는 통일부 장관 홍용표도 그러한 미물이고 박근혜가 시킨대로 친일매국적인 일본파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과 『싸드』 배치에 날뛰는 국방부 장관 한민구나 외교부 장관 윤병세도 같은 뜨물통의 씨끼기들이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흥녀들, 평화적인 초불집회 참가자들을 『란동세력』이라 욕하며 『땅크로 죽이고 죽으로 죽이고 군대가 나와서 죽이자.』고 광란적으로 고아대는 『어버이련합』의 몇 안되는 늙다리들이 그려루한 보수멸거지들이다.

박근혜는 이미 민심의 초불바다에 매장된 숨쉬는 화석에 불파

하다.

그러한 정치송장을 살펴보겠다고 악을 쓰는 악질보수쓰레기들의 몰골이나 망동은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남조선을 세상에 둘도 없을 『무당통치국』, 봉건시대의 군주제도로 몰락시킨 박근혜의 치마자락에 매달린 추물들, 그들에게도 민심은 『상』을 주어야 할 것이다.

희세의 악녀, 맹청이 『녀왕』을 매장할 때 허수아비를 그렇게 따르고 사랑하는 추물들도 함께 『순장』 해주는 것이 그들의 『의리심』으로 보아 마땅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최근 남조선인터넷에 급속히 확대되는 박근혜에 대한 민심의 비난을 『괴담』이라고 비난하는 청와대 『환관』들과 100만초불집회를 보지 말라고 청사사무실 창문의 가림막을 내리라고 지시하는 행정자치부나부쟁이들도 그에 속하는 속물들이다.

초불투쟁이 벌어지는 항쟁의 거리에서도 4%속에 들어있는 추물들의 역겨운 행동을 볼 수 있다.

보라매를 본 암탉처럼 페깅 같은 청와대구석에 틀어박힌 박근혜가 가여워 『힘내세요.』, 『사랑해요.』라고 닭똥같은 눈물을 멀구는 『박사보』(박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집위원회